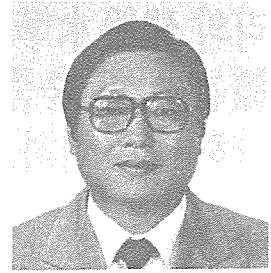


# '85會員建築設計作品展 審査를 마치고

劉 朴 韓  
熙 胤 鍾  
俊 成 彦  
(韓國建築家協會 副會長)  
(本協會理事)  
(高麗大學校教授)

## 建築의 꽃이라 할 수 있는 住居部門 특히 小型住宅 에 關心을...



韓 鍾 彦  
綜合建築士事務所 錦成

이번 '85會員作品展을 위한 작품을 심사하는 자리에 감히 본인이 審査委員會 幹事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심사위원을 모시고 심사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것부터 우선 송구스러운 자리였으며 또한 이런 연유로 이렇게 몇 자 적는다는 것을 회원 여러분에게 밝혀 두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번 '85 회원작품전의 심사에 앞서 먼저 작품을 둘러보았을 때 한 눈에 띄이는 것은 작품의 내용에 앞서 작품을 정리하는 기법이 눈부시게 달라졌음을 感知하였으며 한편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 특히 달라진 것은 회원작품 수준이 완전히 平準化에 가까워 졌다는 것이다.

입장은 조금 달랐지만 2~3년 전만 하여도 조금은 어색할 정도의 水準未滿 作品이 몇 點씩은 보였는데 이번 '85 作品展에 출품한 작품은 거의가 다 水準作 이 아닌가 하면서 둘러 보았다.

또한 출품된 작품의 수, 종류, 규모, 내용 등 모두가 거의 좋은 작품이었다.

여러 심사위원의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좀 아쉬웠던 점은 건축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住居部門 특히 小型住宅의 작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대형건물의 Mass와 중량감에 눌러 지금까지 많은 빛을 보지 못했던 전력도 있지만...

심사위원들도 이 점은 동감이었으며 관계 당국에서도 마찬가지 견해였다.

특히 이번 심사위원은 小型住宅과 非商業用 건물에 관심을 많이 보인 것은 좋은 속사정이 있지않나 느껴진다.

매회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번에도 예의 없이 수상작을 고르는데는 어려웠었다. 모두가 수상을 하였으면 하지만 꼭 몇 점

을 골라야 한다는데 있어서의 문제와 종류별로 다소의 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애석하게 수상의 순위에서 제외된 작품이 한 두 작품이 아니었다. 여기에 또한 과거에 수상을 한 작품(다른 전시회) 그리고 다른 작품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방침(?)이고 보면 약간은 명분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본다. 이 또한 심사의 어려움이 아닌가 본다.

66

작품의 내용에 앞서 작품을 정리하는 기법이 눈부시게 달라졌음을 感知하였으며 한편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

99

한편 이번 '85 작품심사에서 영예의 大賞을 받은 김춘웅 회원과 함께 수상을 받은 회원에게 우선 축하를 드리며 수상을 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아울러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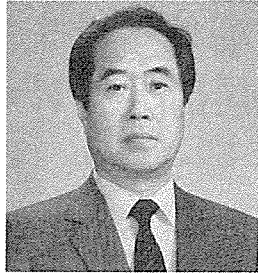
이번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김춘웅 회원의 작품은 어려운 대지조건을 무릅쓰고 경사지를 이용한 다양한 계획이란 점과 주거부문의 공동주택이었다는 점에서 수상을 하지 않았나 본다.

역시 작품을 심사한다는 것은 꼭 어려운 것이며 꼭 몇점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데 문제는 더욱 어려운 것 같다.

또한 순수한 作品性과 特事性도 많은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부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회원의 作品展은 受賞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작품을 발표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며 사실상의 심사는 각자가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몇마디 심사과정에서의 落穂를 적어 본다.

## 우리의 建築水準에 대한 座標를 이번 출품을 계기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朴胤成  
高麗大學校 教授

금번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들이 출품한 건축작품에 대한 심사를 위촉받고, 여기에 應해야 옳을런지 應하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망설이게 되었다. 그것은 이 일이 나에게는 주제넘는 일이고, 많은 회원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까닭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건축의 實現에 대한 作品의 수준과 그 현황을 알아보고 배우는 데에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 교수라는 직업적인 의식은 後進들을 위한 자극제의 資料 수집이 重要的한 일이 되고 있어서, 勇氣를 내어 一方的인 생각이라고 判斷하면서, 會員들의 作品을 평가하게 된 것을 우선 사과하는 바이다.

심사장에는 많은 作品들이 정성을 다하여 출품이 되어 있었다. 이 作品들의 수준은 평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보다는 훨씬 그 수준이 넘는 모두가 손색이 없는 作品들 이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創立 20周年을 맞는 이 時點에서 過去를 돌이켜 볼때, 출품된 많은 건축작품들은 모두가 정성어

리게 또한 건축의 예술적인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려고 하는 努力의 결정체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向上되어가는 수준 높은 것으로 일관 유도되어 왔다는 事實에 대하여 우선 경하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出品된 作品들은 그 내용이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作品들이 출품되어서, 심사를 통하여 수준높은 이 作品들 중에서 수상대상에서 탈락시키는 일이 또한 큰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상대상을 정하여 가는 과정에서도 건축작품을 用途別로 分類하여 고루고루 배분시켜 가는 방향성과, 더욱이 이번에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수상 대상의 폭을 넓히고져 하는 회의분위기의 정책적인 배려는 심사과정에서 個別的으로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여기에서 受賞對象에서 脱落된 많은 作品들도 수상을 한 作品들보다 그 內容에서도 창조적인 作品성에서나 떨어진 水準이 절대로 아님을 부언해 두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 作品들은 모두 건축주들의 어려운 要求와 國土가 좁은 우리나라의 實情에서 야기되는 건축법에 따르는 여러 規定에 대한 壓力속에서 이것들을 하나 하나씩 克服해 가면서 建築의 창조성을 살려 좋은 作品의 방향성을 가졌다는 이 事實 또한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건축의 실현은 예술적으로 評價받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 價値를 認定받고, 또한 用途的인 기능면과 기술적으로도 높이 評價를 받는 建築이 되기를 누구나 회구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가 이러한 명제에 對할 때 이 모든 과업에 대하여 쉬우게 그 實現을 위하여 풀어 나간다는 것이 용이한 것이 아니며, 항상 자기자신이 가지고 있는 좌표와 内部的으로는 갈등을 가지면서 건축설계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건축에 과하여진 모든 면을 고루고루 잘 소화시키고 調整이 잘된

이번에 出品된 作品들은 그 내용이 질적으로 상당히 향상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作品들이 출품되어서, 심사를 통하여 수준높은 이 作品들 중에서 수상대상에서 탈락시키는 일이 또한 큰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건축을 調和있게 實現시킨다고 하면 물론 훌륭한 건축이 탄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分野의 調和된 견비성은 實質的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건축수준에 대한 좌표를 이번 출품을 계기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와같은 作品발표를 통하여 自己自身을 기증하고 더 나아가서 自己自身을 재정비를 하여 도약발전하여 갈 수 있는 契機가 된다고 하면 정말 다행한 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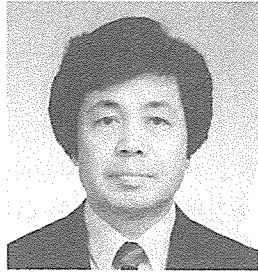
이것은 곧 한국건축의 發展을 위한 굳은 사명감이 움틀 것이고, 앞으로의 建築活動의 방향성이 韓國建築의 시대적인 거울이 될 수 있는 作品들이 보다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國際적으로도 認定을 받는 건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것을 가지고 두서없는 말이라고 생각되나 몇마디 심사평으로 하고저 한다.



# 공학과 예술의 경지에서 보람과 희열을 찾고 맛보면서



劉熙俊  
韓國建築家協會副會長

울산공대문수관 건물은 강의실에서 교단을 향한 기능적인 의자배치에 따른 6각형의 강의실들과 홀들을 명확한 설계방향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고 평면에서의 적절한 曲面壁은 바라보는 시점에 의해 입면에서도 그 곡선은 直線狀의 형태에 유연한 느낌을 주고 있다. 内外部 공간에서의 일관성 있는 벽돌재의 사용이나 Lattice Steel 구조에서 느껴지는 開放感은 넓은 공간의 바닥에 떨어진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와 더불어 다양한 느낌을 주는 점 찍 좋게 느껴진다. 넓은 홀에서 옆으로 길게 뻗어진 frame을 통해 내다보이는 자연 景觀의 도입이 감동적 視覺효과를 주는 점이나 계단의 단의 형태가 벽에서 흰색의 같은 느낌의 형태로 反響된 형태감으로 통일감을 느끼게 한 점 등 모두 높이 평가된다. 외에서 solid한 mass와 void된 공간감 사이에서 얻어진 대비감과 계단의 斜線을 정직하고 과감하게 표출시켜 형태감의 도출에 기여케 한 점 등 모두 호감이 가는 설계이다.

금성사평택공장공용회관은 벽돌 mass와 vault형 유리공간과의 사이에서 느껴지는 凹形曲面과 네모진 건물형태간의 對比感과 아울러 그의 材質感의 대비 모두 강한 조화미를 표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solid한 벽돌 mass에서 다시 재질감의 통일성을 부여하며 1층 부분에서의 recess는 다시 같은 類의 대비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입구부분을 포함한 평면계획에서 명확한 해결로의 시도와 벽돌재료의 내외부 공간에서의 일관성 있는 사용이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설계이다. 내부홀에서의 아아치와 건축화된 조명과 노란색의 과감한 사용은 한국에서의 적절한 post modern-

ism의 경미한 도입이라는 느낌과 더불어 호감을 주는 설계이다.

서울상공회의소회관은 건물과 도로사이의 메마른 도시환경속에 다양한 높이와 형태감 속에서 설계된 造景의 공간계획이 건물과 인간과의 호흡에 일체감을 주고 있다. 건물의 正面性을 필요에 의해 어느 방향에서도 적절히 주고 있고 창과 벽면 사이의 조화감과 scale감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된다. core를 중앙에 두고 사무공간이 돌아가며 터있는 평면계획은 사무기능의 팽창에 따른 이동을 收容할 수 있는 경제적 평면으로 호감이 간다.

한인친취리클럽하우스는 하나의 거대한 지붕 밑에서 기능의 요구에 따라 전개되는 표정의 다양한 변화감이 강한 입체감과 더불어 solid와 void의 대비속에, 그리고 親近感과 壯重感이 또다른 대비속에서 이루어지는 풍부한 형태감이 높이 평가된다. 방풍실을 지나는 횡적인 部材의 형태상의, 그리고 색조상의 강조 등은 새로운 감각적 素地를 심분 표상해 주고 있다. 외부지붕 형태의 내부에서의 표정과 자연스러움 또한 호감을 주는 설계이다.

대한재보험건물은 無柱空間의 사무소가 주는 책상 배열의 융통성에 따른 경제적효율을 높이려는 뜻과 사무실 공간과 core와의 관계정의가 명확한 설계이념에서 일관되고 있는 점 등 높이 평가된다. 다만 외관에서 core의 solid하고 밝은 mass와 사무소 공간부분의 어두운 표면과의 대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interlocking된 느낌이 다소 아쉬운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으면 더 좋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성심여대지하성당은 대학캠퍼스에서

지하레벨에 그의 기본층을 두어 종교적 겸허함과 소음으로부터의 격리와 지하성당 주변 조경환경의 지상의 복잡함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시켜 주려는 작가의 기본구상이 높이 평가된다. 8각형 성당 내부의 pointed shape의 아래위로 긴창들의 반복된 리드미칼한 형태는 낮은 周壁에 성당이 갖게되는 분위기를 심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지하성당으로서의 天窓의 도입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비스런 공간분위기에 기여를 하게 하고 있다. 노출형의 球形燈의 성당내부에서의 설정은 딱딱해지기 쉬운 角形의 내부공간에 cord pendent등이 주는 tension감과 더불어 떠다니는 공간감을 자아내주고 있는 점 등 모두 높이 평가된다. 작가의 의도나름이었으나 외관형태와 사용 材質感 pattern 등이 high-tech의 느낌을 주고 있으나 친근감이 다소 아쉬운 것이 없었다면 꽤 좋았지 않았으나 하는 느낌이 아쉬움으로 다소 남는다.

부산삼일교회는 불정형의 평면형태감을 느끼게 하나 세심한 幾何學的 처리와 기능에 따른 단면상의 높이의 변화와의 교차효과에서 나오는 내외부의 다양한 입체감이 높이 평가된다. 천정의 lattice pipe girder의 구조의 노출은 인간의 정직성을 주창하는 교회의 이념을 표상해 주듯 구조의 순수미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다시 단조로운 평탄한 내부벽면과의 사이에서 質感의 대비로서의 조화미를 자아내주고 있는 데에 호감을 느끼게 한다.

마산고려병원은 기능에 따른 구조계획이 세심한 배려에 의해 이루어져 설계되고 있으며 외래병동의 2층 규모에서의 중정은 그의 넓이와 더불어 입구와 로비에서 병원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그와 아울러 1,2층 복도에서 화사한 느낌을 주게 하는 것 등 모두 높이 평가된다. 외관에서 일반병동과 외래병동과의 연결부나 외래의 2층의 floating 효과가 주는 橫的인 運動感이나 병동의 평면기능에 따른 외관의 다양한 형태구성 모두 좋게 느껴진다. 다만 column layout에서 span이 각기 달라진데서 오는 施工性上的 경제적 문제가 기능에서 얻는 경제성을 능가할 수 있는 설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은 다소 남는다.

금성전선구미사무소건물은 평면계획과 입면계획 다같이 單純美를 구가하는 깨

곳한 설계이다. 밝은색 타일과 검은색 spandral과 유리면 사이에서 오는單純性의 획득이나 세심한 배려에서 분할된 여는창의 위치가 주는 디자인등 모두 높이 평가된다. 전체적인 건물의 이미지에서 조용함의 느낌은 단순함이 주는 아름다움 이외에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대신신영증권사옥은 명확한 기능이 구조계획과 더불어 해결되어 나가고 있는 점이나 유리창면과 high-tech의 느낌의 spandral의 과감한 색의 채택은 어두운 도시공간에 밝고 발랄한 색상을 제공하여 환한 느낌을 주는 역할에 기여한 점 높이 평가된다. 다만 청색이 약간 떠보이는 느낌이 없이 밝으면서도 갈아얇은 청색조였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태원테라스하우스는 경사진 어려운 대지조건위에서 주변환경의 지붕들의 형태가 조화롭게 도입되어 統一感을 부여하면서 공간구성상의 다양감을 個의 尊重이란 설계이념을 바탕으로 자유분방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Rudolph의 예일대 기혼자숙소에서와 경사진 아파트 住居群이면서도 테라스가 있는 독립주택의 형식의 설계이념이 서울에서 심분 발휘되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점 좋게 생각한다. 그것은 흰색으로된 낮은 담장에서 더 구체화 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엮이이는 설계로서 기능에 따른 공간형태구성상의 완숙함이 벽돌과 백색 요소사이의 대비와 더불어 視覺的 즐거움을 주거환경에 주고 있다.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감이 다소 혼란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카톨릭사회교육관은 주어진 대지의 상황을 적절히 잘 활용한 점과 幾何學의 형태로서의 斜線벽면과 4각과의 interlocking이나 1,2층의 개방된 홀의 변화감 있는 처리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선과 벽돌과의 대비감이나 내부계단에서 조그만 디테일로서 gradation의 리듬感의 효과를 내주고 있는 점 모두 높이 평가된다. 다만 기도실의 형태감으로서 내부에서의 느낌이나 넓은 공간으로서의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고 어두운 낭하등이 더 잘 해결이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강남원빌라는 경사진 언덕을 따라 어려운 대지조건을 심분 잘살려 공간구성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벽돌벽과

백색면, 난간과 斜線요소 등이 적절히 잘 쓰여져 주거건물로서의 친근감과 변화감을 잘 이루게 하고 있는 점이나 건물群사이의 외부공간에서 안락한 community의 느낌주고 있는 것 모두 높이 평가된다.

평창동 J씨택은 현관에서의 vista와 적절한 공간의 넓이가 주는 delight, 거실, 식당의 적절한 프라이버시와 연못으로의 vista, 이층에서의 긴 복도의 軸의 양측에 전개되는 변화감, 잔디와 하늘의 진한색 사이의 흰돌과 스페니쉬 기와와의 調和美, 돌쌓기방식의 친근감, 외벽면과 유리창 사이의 깊이를 준 생각, 모두 높이 평가된다.

평창동 L씨택은 어려운 대지상황속에 평면이 기능에 따른 direct solution으로 실이 배열되 나가고 있는 점과 흰돌과 wood shingle과 목재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이층의 지붕형태로 하여금 과감한 형태로 하면서 주택이 지니는 個性을 살린 점이 높이 평가된다. 지붕형태상의 통일성과 크기의 다양감에 의한 통일성 또한 좋게 느껴진다.

용평크럽하우스는 평면에서 홀, 안내소, 대기소, 식당, 배선소, 주방, 남녀화장실 등 공간의 구획이 기능을 기본으로 해서 친근감있고 변화감있게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다. 건물외관의 斜線形 형태의 方向性의 변화가 주는 均衡感은 나무의 붙이는 방향의 일관성에 의해 건물상호간을 일체로 엮어주는 통일감을 부여케 하는 것등 좋게 평가된다.

서울프레스센터건물은 core와 사무공간의 배치나 평면형태에서 나온 외관에서의 네면의 方向性을 포함한 上昇感의 부여와 적절한 높이의 1층 부분과 캐노피와 건물높이 3요소간의 스케일감의 적절한 구사 등이 좋게 평가된다.

코리아씨티는 외관에서 회화적인 구성으로 건물에 다양한 변화감을 주고 그 위에 한국적 이미지를 그래픽적으로 처리한 것 좋게 느껴진다. 다만 외관을 위해 평면의 창의 회색이 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제주천체루는 작가가 우리의 전통고유건축을 계승 설계하고 있다는데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 이러한 대지에 이러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누가 보아도 눈에 낮설지 않고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그 傳統美를 느끼게 해주어 고맙다. 다만 아직도 우리는 傳統의 現代의 表象이 바람

66

빠르면서도 정확한 설계이념과 이론과 감각에서 가능하면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 나를 포함한 모든 건축가들이 지니는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99

직한 것인가 아닌가 또는 바람직 하다면 어떤 형태감으로 표출될 것인가 그로부터 나온 혹시나 어설픈 건물형태는 내재한 뜻은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에 傳統을 빙자해 나오는 視覺公害는 일으켜주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대로 옛날것을 여러곳에 자꾸 세우는것이 옳은 길이 될것인가 또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적어 두기로 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든 산업이나 국민총생산고와 더불어 우리의 건축 설계문화도 그와 발맞추어 발전해야 되고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발전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를 수는 없는 것일까. 또 빠르면서도 정확한 설계이념과 이론과 감각에서 가능하면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 나를 포함한 모든 건축가들이 지니는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60년대초에 미국서 조금더 공부한뒤 여러해동안 설계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over design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오고간 기억이 난다. "It looks too busy."라든가 "It looks too much."라든가 하는 뜻과 통용되기도 하는 그말은 기능의 해결과 그에 따른 내외부 형태에서 고려해야 될 수많은 사항들과 그들의 비중이 배려되고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설계로 전개될때 그말은 어김없이 찾아드는 괴로운 낱말이기도 한 것이다.

남의 작품을 심사한다는 것처럼 너무 의람되고 송구스럽고 괴로운 일도 없다. 오늘을 사는 우리 건축가들이 말은 보다 좋은 건축환경을 국민에게의 제공이란 대국적 측면의 목적이 아니라라도 공학과 예술의 경지에서 보람과 희열을 찾고 맛보는데 서로 좋은 점을 얘기하고 더 큰 confidence 속에서 많은 건축가들이 구옥같은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으면 하는一念에서 심사에 응했고 너무도 미진하지만 심사평에 대하고저 한다.